나주시·신안군 '홍어 식문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

인류무형유산 등재·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협력…자료 공유·학술연구 등

'홍어 1번지' 나주시와 신안군이 '홍어 식(食)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에 함께 나선다.

나주시와 신안군은 지난 12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홍어식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나주 영산포·신안 흑산도 주민, 홍어 명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두 자치단체는 홍어식문화를 유네스코에 올리기 위해 기본계획을 함께 세우고, 국가무형문화재(공동체 종목) 지정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홍어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문화재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등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숙성 홍어의 본고장' 나주 영산포의 역사는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중종 25년 관찬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고려말 남해안 지역 왜구의 노략질로 신안 흑산도 인근 영산도 어민들이 나주 영산포로 피난을 오게 됐고 그때부터 이 지역에서 삭힌 홍어를 먹게 됐다.

당시 영산도에서 영산포까지 오는 데는 뱃길로 보름 정도 걸렸다. 이때 배에 싣고 온 생선들이 부패가 심해 버렸는데 항아리 속에서 폭 삭은 홍어만큼은 먹어도 뒤탈이 없는 데다 먹을수록 알싸한 풍미가 있어 숙성 홍어가 영산포에 정착했다는 유래다.

신안은 세계자연유산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흑산도 홍어의 고유성과 역사성은 정약전의 '자산어보', 홍어 장수 문순득의 표류기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흑산도의 홍어잡이는 전통어법인 외줄 낚시와 주낙을 계승한 '걸낙' 방식이다.

신안 흑산 홍어잡이 어업은 지난 2021년 국가중요어업유산 11호로 지정됐다. 신안에서는 갯벌 천일어업(4호·2016년), 갯벌낙지 맨손어업(6호·2018년)에 이은 세 번째 지정이다.

흑산권역에서 출하된 홍어는 지난해 기준 420t이다.

이 밖에도 나주시와 신안군은 각각 19번째, 9번째 '홍어 축제'를 열며 식문화 계승과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윤병태(오른쪽) 나주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12일 나주시청에서 '홍어식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최근 들어 군산 앞바다에서 전국 홍어의 45%가량이 잡히면서 흑산도가 어획량 1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이번 문화재 등재를 통해 두 자치단체가 '홍어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나주와 신안이 손을 잡고 계승해온 홍어 식문화를 확산하고 세계인류와 함께 나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양 시·군과 의회, 생산과 발효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온 명인, 주민들 모두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문화문화유산 등재에 한 마음으로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영산도와 영산포는 명칭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갖고 있다"며 "전라도 식문화의 본류를 세계에 알리고 문화적 자긍식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담양군 '한재골 숲속놀이센터' 운영 아이디어 공모

30일까지 콘텐츠·프로그램 등

담양군이 올 하반기 개장 예정인 대전면 한재골 숲속 놀이센터 운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내용은 한재골 숲속 놀이센터의 운영전략 콘텐츠 구성·한재골 숲속 놀이센터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방안·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건축물) 되는 방안·건축물 운영 도입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이메일(scs015@korea.kr) 또는 군청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 원, 동상 3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한재골 숲속 놀이센터는 수려한 계곡과 울창한 산림자원(편백, 배롱나무 등)을 자랑하는 한재골 수목 정원 내 위치한 건축물이다.

총 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작년 초 착공해 올 8월 준공 예정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한재골 숲속놀이센터 조감도.

17일 화순서 '풍년 기원' 능주 들소리 민속공연

모내기가 한창인 남도 들녘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능주 들소리〈사진〉 민속공연이 펼쳐진다.

화순군은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능주 들소리 민속공연이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능주들소리보존회원과 주민, 관광객, 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능주 들판과 능주 역사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능주 들소리는 화순군 향토 문화유산 제65호로 지정된 무형유산으로 지난해 전남 민속예술축제에서 화순군 대표로 참가해 대상을 받았다.

2024년 전국민속예술축제에는 전남도 대표로 출전하는 등 무형유산적 가치가 크다.

이번 공연은 능주농협 로컬푸드 옆 논에서 주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며 시연할 예정이다.

기계 농사가 주류를 이룬 농촌 들녘에서 옛 모내기 풍경을 재현하고 당시 불렸던 들소리까지 곁들여지는 뜻깊은 행사다.

이날 오전 10시 식전 행사는 능주면 마을 깃발을 앞세운 능주 농악대의 길놀이로 시작된다. 이어 능주역사관 앞마당에서 개회식이 열린 뒤 오전 11시 30분 인근 논에서 본격적인 들소리 민속공연이 펼쳐진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 백년·덕산마을 생활여건 개선된다

정부 공모 선정 4년 38억 투입

함평 백년마을과 덕산마을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4년간 38억원 투입해 마을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함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함평읍 백년마을과 월야면 덕산마을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위생·안전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빈집과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되면서 앞으로 4년간 백년마을은 21억원, 덕산마을은 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들 마을은 오래된 주택을 정비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고친다. 주민 건강 관리를 위한 '휴먼케어' 사업도 추진한다.

함평군은 지난 1월부터 공모 사업 신청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애인 전동보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장성군, 내년 5월 31일까지

장성군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군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장애인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성군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최대 2천만원까지 배상할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전체 배상액의 1%로, 최대 20만원이다.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휠체어코리아닷컴에 연락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 발굴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예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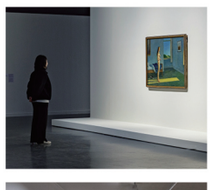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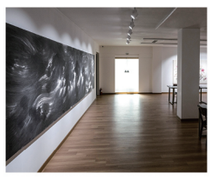
藝鄕

2023년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화제의 전시 1
거장의 예술혼과 명작들
서울시립미술관
'에드워드 호퍼: 길위에서'전



화제의 전시 2
사찰과 그림, 그윽한 풍경
무각사 로터스 아트 스페이스
'올해의 작가 문봉선'전



예향 초대석
'삶의 유산' 기록하는 사진가·기획자
김지연
"우리 시대 '기억 아카이브' 소중합니다"

해외문화기행 ⑰
벤치, 정원, 미술관에서
맛보는 아주 특별한
코펜하겐의 시간

기획-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 ⑧
브로츠와프와 아우슈비츠 수용소
'저항 정신' 난쟁이
집단 학살의 흔적들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⑪-에필로그
선비들의 의로운 길 따라
9개 대표 서원의 풍경과 정신 만나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 ⑧
충장로 우다방, 우체부와 러브레터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⑥
홍콩의 과거·현재·미래사
뒤엉킨 '왕가위 유니버스'